

# Japan Weekly Digest

2012. 6. 16 ~ 2012. 6. 22

① 주간 경제 초점

- 도요타와 닛산, 생산능력 감축

② 산업 및 통상 전략

- 2012년판 통상백서 발표
- 한국의 대일 투자기술 유치에 대한 일본의 반응
- 일본 해외직접투자 2020년까지 35조엔 유치 목표

③ 일본기업의 협력 동향

④ 주요 연구보고서 정보



**대한한일경제협회**

**Korea-Japan Economic Association**

- ※ 자료제공 : (재)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일본지식정보센터
- ※ 본 자료는 협회 홈페이지(<http://www.kje.or.kr>)에서 PDF파일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사오며, 본 자료를 이메일로 받기를 희망하시는 회원께서는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Tel.02-3014-9888)

## ① 주간 경제 초점 : 도요타와 닛산, 생산능력 감축

### □ 공동화방지도 염두에 둔 최선책

- 일본의 대표 자동차메이커인 도요타자동차와 닛산자동차가 국내 생산능력을 축소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엔고, 인구감소, 노동 규제 등 어려운 사업 환경임
  - 도요타 자동차는 2014년부터 국내 생산능력을 10%이상(연간 50만대)축소, 310만대 생산체제로 수요변동에 따라 생산대수를 조정하기 용이하도록 재편
  - 닛산자동차는 7월부터 주력생산거점인 가나가와현 옷바마(追浜)공장의 2개 생산라인 중 1개 라인을 중지, 국내 차량생산능력을 15%(연간 약20만대) 감축
- 양사는 모두 일본 내 생산거점을 경쟁력 원천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적인데, 부품·소재를 포함한 자동차산업의 공동화 방지도 공조하고 있음
  - 특히 도요타의 경우 국내 모노즈쿠리기반을 남겨서 고용을 지키기 위해 허용되는 한계점까지 생산능력을 축소할 계획임
- 일본경제신문 기사에 의하면 닛산자동차 카를로스 곤 사장은 엔고가 큰 핸디캡이라고 하면서, 달러당 80엔 이하의 초엔고에 대하여 “1000파운드의 고릴라와 같이 무겁게 느껴진다” 고 불만을 토로
- 엔고로 도요타, 닛산, 혼다의 2012년 3월 결산기 단독 영업 손익은 합계 6344억의 적자를 시현. 이는 엔고로 수출채산성 악화가 큰 요인으로, 각사 모두 해외에서 이익을 내고 있음
  - 따라서 국내사업의 재구축은 일본 자동차메이커들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피할 수 없는 과제임
- 자동차산업은 부품 및 소재 등 저변이 넓어 이른바 스소노산업(총체적 산업)으로 일컬어지고 있음. 부품조달망의 안정 기반 유지를 위해서는 일정한 수익을 확보할 수 있는 생산규모가 필요한 데, 도요타와 닛산은 각 300만대, 100만대로 그 규모를 정하고 있음
  - 양사 모두에게 생산능력 축소는 그 규모를 유지하면서 국내사업의 수익성도 개선해야 하는 양립하기 어려운 대응임

## □ 수출·해외생산 환경은 양호

- 세계 자동차시장은 신흥국을 중심으로 향후에도 안정적인 성장세가 지속될 전망이어서 일본자동차 메이커들의 전망은 밝은 편임. 각사 모두 매년 수 십만대 씩 해외생산을 늘리고 있는데, 이는 일본 내 공장은 세계의 공장을 지탱하는 마더(모)공장 역할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임
- 도요타는 아이치현 토요타시공장에서 생산기술개발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이미 수요 변동에 맞추어 생산을 신속적으로 증감시킬 수 있는 「어코디언 라인」을 개발, 자회사에 이어 중국, 브라질 등 신흥국공장에서도 도입
  - 세계 각국에서 효율적인 생산을 할 수 있도록 여러 차종에서 가능한 부품을 공통화하여 코스트를 절감하는 한편, 디자인이나 성능 등 상품력으로 이어지는 부문에 중점적으로 자금 및 인재를 투입하는 새로운 설계개발도 추진하고 있음
  - 이와 같은 국내에서의 대응을 통해 창출된 신형차를 효율적으로 생산할 수 있으면 그만큼 경쟁력은 향상되게 됨
- 닛산은 옷바마공장 내에 생산기술팀의 일부를 이전, 생산현장과 연대를 강화하고 있음
  - 국내생산을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국내 신차공장의 활성화가 필요하나, 저출산·고령화나 과중한 세금부담 등 구조적인 문제로 신차시장의 회복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임
  - 일본의 자동차메이커들은 축소되고 있는 국내시장에서 생산체제를 지키면서 글로벌전략을 확대해야 하는 힘겨운 싸움에 직면해 있음

## □ 자동차 부품기업들도 생산체제 재검토

- 자동차 부품회사들도 완성차메이커에 맞추어 생산체제 재검토에 나서고 있음. 부품·소재산업의 두터운 집적기반이 경쟁력의 원천인 만큼, 완성차메이커들의 생산혁신을 계기로 경쟁력을 한층 높일 수 있을지가 관건이 되고 있음

## ② 산업 및 통상 전략

### □ 2012년판 통상백서 발표

- 에다노 경제산업대신이 22일 각의에서 2102년판 통상백서를 보고. 금년 통상백서는 자원가격 상승, 엔고 등으로 인한 무역적자 반전, 기업의 수익악화 문제를 골자로 다루고 있음
- 특히, 일본과는 달리 유로화가치 상승국면에서도 수출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는 독일을 예로 들어 브랜드가치, 기술력 향상으로 엔고를 극복해야 한다고 결론을 맺고 있음
- 무역과 관련하여, 작년 3월 동일본 대지진으로 서플라이 체인의 단절, 여름 이후 엔고 진행, 10월 태국홍수로 인한 일본계 기업의 피해 등 작년 통상환경을 역사적으로 심각한 상황이라고 평가하고 있음
- 통상환경 변화에 대응 방식으로 대조적인 사례로 독일과 한국을 들고 있음
  - 독일에 대해서는 강점을 부각시키고 있는데 독일의 수출은 유로화 가치의 하락 영향을 받고 있다는 지적도 있으나, 통상백서에서는 독일의 수출 물가는 환율의 영향을 받고 있지 않다고 분석하면서 적절한 가격전가나 가격인상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강조
  - 또한 독일의 경우 대기업에서 중소기업에 이르기까지 높은 기술력과 마케팅으로 해외에서도 가격경쟁력이 발휘, 높은 수익률로 이어지고 있다고 평가
  - 한편, 한국은 일본과 마찬가지로 환율이 수출수익력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분석하면서 전기, 전자부품 분야에서 한국과 일본 모두 환율변동과 가격하락에 고심하고 있다고 지적
- 뿐만 아니라, 독일은 수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동시장 개혁을 추진하여 인건비를 억제하는 동시에 법인세 인하나 연구개발 촉진에도 주력하고 있다면서, 독일의 대응방식에서 일본도 배울 점이 많다고 평가
- 나아가, 일본기업이 해외에 진출함으로써 공동화가 촉진될 우려도 있으나, 해외로 나가는 것이 오히려 국내고용을 증대시키고 있다는 조사결과를 소개하면서, 제조업뿐만 아니라 서비스업도 해외시장 개척이 중요하다고 지적하고 있음

## □ 한국의 대일 투자기술 유치에 대한 일본의 반응

- 일본경제신문이 최근 일본에서 한국 대기업의 기술자 채용동향을 소개하면서 한국의 대일 투자기술 유치 및 일본기업의 대한 투자에 따른 문제 등을 다루고 있음
- 최근 현대자동차와 LG그룹이 일본이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첨단소재·부품분야를 강화시킬 목적으로 일본에서 기술자 채용활동을 하고 있음
  - 현대자동차는 전자제어, 재료, 환경 분야 등을 전공하는 한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입사시험을 실시
  - LG는 KOTRA와 공동으로 일본기업의 퇴역기술자나 한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일본에서의 입사시험·면접을 검토하는 등 기술인력 확보를 강화
- 또한 한국정부도 일본기업 유치를 지원, 자국·자사만으로 부품산업을 육성하는 일본식의 자전주의로부터 전환하고 있다고 일본경제신문은 지적
  - 한국은 2001년 부품·소재특별조치법을 제정, 첨단 분야의 부품·소재 국산화를 추진해왔으나, 대일적자는 2001년 105억달러에서 2011년에는 2배인 228억달러로 확대. 특히 액정패널이나 반도체 제조 등에 없어서는 안 되는 일부 소재는 80%이상을 대일수입에 의존
  - 한국 정부는 동 특별조치법을 10년 연장하는 한편, 일본기업 유치에 주력
- 최근 한국의 FTA, 정부의 두터운 지원에 매력을 느낀 일본기업들의 대한 투자사례가 늘고 있으며, 질적으로도 탄소섬유, 리튬이온전지재료, 액정패널재료, 발광다이오드재료 등은 기존의 투자와는 차별화된 분야임
- 일본기업의 부사장에 의하면, 한국에는 삼성이나 LG등 빅 플레이어의 존재, 일본보다 저렴한 전기요금은 큰 이점인데다, FTA를 이용 제3국 수출의 거점으로 활용할 수 있음을 지적
- 높은 법인세, 엔고 등 6중고에 허덕이고 있는 일본기업으로서는 한국진출이 단기적으로 이점이 크다고 보고 있음
- 그러나 일본 제조업을 지탱해 온 부품·소재산업 기반의 상실 등 공동화문제와 기술유출 리스크가 증대될 우려는 있는 바, 일본정부나 기업들이 장기적인 과제에 여하히 대응할 것인가도 시야에 둘 필요가 있다고 평가

## □ 일본, 해외직접투자 2020년까지 35조엔 유치 목표

- 일본정부는 22일 「아시아거점화·대일투자추진회의」를 개최, 2020년까지 외국 기업의 대일직접투자를 2011년의 2배인 35조엔으로 늘릴 목표를 설정하고 ‘일본재생전략’에 반영할 방침
- 이미 입지보조금이나 부흥특구제도 활용을 포함한 구체적인 계획을 작년 말에 결정하였고, 매년 회의를 개최하여 진척상황을 확인할 방침임
  - 부흥특구제도의 적용대상은 동일본 대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11개 도·도·부·현, 222개 시·정·촌으로, 부흥특구로 인정되면, 농지전용이나 공업지역의 용도 규제 완화 등 15개 특례조치를 받을 수 있음
  - 특구의 신설기업은 5년간 법인세 면제 등 세제상 특례조치나 부흥교부금제도를 마련하였고 이번 국회에 부흥특구법안을 제출하여 빠르면 금년 내에 부흥특구로 지정할 예정
- 이번 회의에서는 동일본대지진 부흥사업에 외국기업의 투자를 유치할 계획을 새로이 추가함. 해외에서 부흥특구제도에 관한 심포지엄 개최나 해외기업을 동북지역에 초청, 입지환경에 관한 설명 등을 실시할 계획임
- 동 회의는 작년 말 발족되어 이번이 3회째. 의장인 내각부 정무관은 이번 회의의 모두발언에서 “장기적으로 안정된 직접투자에 의해 외국기술이나 노하우를 유치하는데 목적이 있다”는 점을 강조

### ③ 일본기업의 협력동향

일본기업	발표일자	업종	대상국가/기업	사업형태/내용
일본전산정밀	2012.6.22	스마트폰부품	베트남	직접투자/스마트폰용소형모터 생산공장 건설, 투자규모 약 32억엔
야마자키마작	2012.6.22	공작기계	미국	직접투자/생산능력 50% 확대
미쓰이창고	2012.6.22	물류	중국/금강해운	자본제휴/합작물류회사설립, 39%출자
일본전산	2012.6.21	모터	중국/강소개우기차전기	직접투자/주식 51% 취득(M&A)
구보타	2012.6.21	농업기계	인도네시아	직접투자/농기계 판매회사 설립
소지츠	2012.6.20	수산물 가공	인도네시아/사빈드	자본제휴/수산물양식·가공 합작회사 설립, 총사업비 8억엔
미쓰비시상사	2012.6.20	낙농	호주/MGC	자본제휴/낙농협동조합MGC와 생유 가공합작회사 설립, 출자비율 24%
미즈호파이낸셜그룹	2012.6.20	금융	브라질/웨스트LB 브라질	직접투자/매수, 매수가 약 300억엔
동경전력/미쓰비시상사/일본우선	2012.6.19	천연가스	호주	직접투자/천연가스전, 권리10% 취득, 총투자액 3500억엔
기린홀딩즈	2012.6.19	맥주	호주/LWB	직접투자/호주맥주회사 LWB를 완전 자회사화, 추가취득금액 약 200억엔
미쓰비시UFJ은행	2012.6.18	금융	한국/수출입은행	협조융자/융자규모 약 210억엔
아마다	2012.6.18	금속가공기계	이탈리아/프리마인더스트리	기술제휴/공동개발
동연사모테크	2012.6.18	자동차부품	멕시코	직접투자/열처리가공공장 설립/설비투자규모 23억엔
소우지츠	2012.6.16	석탄가공	몽골/올드즈그룹	직접투자/자회사주식의 10%취득, 석탄가공·물류사업 참여
후지츠	2012.6.16	수퍼컴퓨터	호주	수주/수주액 약 39억 6천만엔
퍼스트리테일링	2012.6.16	유통	필리핀	직접투자/유니클로 1호점 개설

\* 자료: 일본경제신문기사에서 정리

#### ④ 주요 연구보고서 정보

- (1) 『일·중·한 FTA의 의의와 과제: 성장아시아를 축으로 한 통상교섭』 히타치종합  
계획연구소, 6월16일

\*출처: [http://www.hitachi-hri.com/research/organ/pdf/vol6\\_4\\_5.pdf](http://www.hitachi-hri.com/research/organ/pdf/vol6_4_5.pdf)

- (2) 『일본 재정적자의 유지가능성』 경제산업연구소, 6월21일

\*출처: <http://www.rieti.go.jp/jp/publications/dp/12j018.pdf>

- (3) 『일·중·한 비즈니스연대에 관한 조사연구보고서』 JETRO, 6월21일

\*출처: [http://www.jetro.go.jp/jfile/report/07000978/jp\\_cn\\_kr\\_business\\_alliance.pdf](http://www.jetro.go.jp/jfile/report/07000978/jp_cn_kr_business_alliance.pdf)

- (4) 『대중직접투자의 조류와 투자 유인』 미쓰비시동경UFJ은행, 6월21일

\*출처: [http://www.bk.mufg.jp/report/ecorevi2012/review\\_0120120620.pdf](http://www.bk.mufg.jp/report/ecorevi2012/review_0120120620.pdf)

- (5) 『전력·에너지 부족과 거시경제의 영향』 농협공제종합연구소, 6월22일

\*출처: <http://www.nkri.or.jp/PDF/2012/Rep121kinoshita.pdf>

- (6) 『통상백서 2012』 경제산업성, 6월22일

\*출처: [http://www.meti.go.jp/report/tsuhaku2012/2012honbun\\_p/index.html](http://www.meti.go.jp/report/tsuhaku2012/2012honbun_p/index.html)